

乾隆帝의 長春園 프로젝트에 관한 試論*

이 은 상**

Ⅰ 국문초록 Ⅰ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이전의 중국 왕조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청나라는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였다. 北京 城 바깥 서북쪽 교외에 세워진 거대한 여름 별장인 圓明園은 康熙帝(재위 1661~1722)가 네 번째 아들인 胤禩(훗날 雍正帝)에게 하사한 園林이었다. 乾隆帝(재위 1735~1795)는 1749년에서 1772년까지 원명원의 동쪽과 남쪽에 또 다른 원림인 長春園과 綺春園을 조성했다. 각각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 福海라는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세 원림은 원명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18세기 다민족국가였던 청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건륭제에게 장춘원 조성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지녔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장춘원에 조성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건륭제가 南巡에서 접한 江南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원림들을 복제한 것이다. 건륭제는 강남의 수많은 이름난 원림들을 두루 돌아보았다. 그는 장인들과 예술가들을 대동하여 그들에게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장춘원에 옮겨놓고 싶은 원림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복제하도록 했다. 또한 그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장춘원에 유럽식 궁전인 西洋樓를 건설했다.

장춘원은 건륭제에게 그가 다스리는 광활한 청 제국의 축소판이었다. 장춘원은 건륭제에게 ‘畚畝’처럼 그의 ‘천하세계’를 표상하는 미니어처 정원이었다. 건륭제가 장춘원에 복제하여 재현한 강남의 이름난 원림들은 그의 영향권에 있는 강남 지역을 표상하는 문화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영향권에 있는 ‘천하세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물들을 수집하여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써 통치자는 그가 복제하여 재현한 대상들이 표상하는 지역들에 대한 지배를 공포하게 된다.

[주제어] 청나라, 다민족국가, 건륭제, 원림, 장춘원, 서양루, 보편제국

Ⅰ 목 차 Ⅰ

- | | |
|--------------------|------------|
| I. 서론 | IV. 複製의 의미 |
| II. 장춘원에 재현한 江南 園林 | V. 결론 |
| III. 西洋樓 |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5421)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원 / xuewen@hanmail.net

I. 서 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이전의 중국 왕조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청나라는 중국 내지의 농경 지역뿐만 아니라 만주·몽골·위구르·티베트 등 유목 지역을 그 판도에 넣은 중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국가였다. 또한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漢族뿐만 아니라 통치 핵심세력인 만주족을 비롯하여 이전에는 중국에 포함되지 않았던 티베트인·위구르인·몽골인·버마인·타이계 민족·타이완 원주민 그리고 기타 청나라가 정복한 지역의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¹⁾

크로슬리(Pamela Kyle Crossley)에 의하면, 유라시아에 걸쳐 보편제국 군주들의 문화적 행위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백과사전, 동·식물원, 원림 또는 ‘호기심의 방curiosity cabinet’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세계를 축소화하여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²⁾ 청나라 초반 康熙帝(재위 1661~1722)와 雍正帝(재위 1723~1735) 그리고 乾隆帝(재위 1735~1795)는 ‘세계’를 포함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보편군주’임을 보여주기 위한 일련의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³⁾ 강희제의 명에 의해 청 제국의 영토를 조사, 제국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皇輿全覽圖』라는 지도가 완성되었고, 1751년에 건륭제의 명에 의해 『皇清職貢圖』라는 시각적 민족지가 제작되었다. 강희제와 건륭제의 명에 의해 편찬된 『古今圖書集成』과 『四庫全書』 그리고 그들에 의해 조성된 避暑山莊과 圓明園은 크로슬리가 말하는 ‘세계를 축소화하여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北京 城 바깥 서북쪽 교외에 세워진 거대한 여름 별장인 원명원은 강희제가 네 번째 아들인 胤禩(훗날 옹정제)에게 하사한 園林이었다. 건륭제는 1749년에서 1772년까지 원명원의 동쪽과 남쪽에 또 다른 원림인 長春園과 綺春園을 조성했다. 각각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 福海라는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세 원림은 원명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18세기 다민족국가였던 청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건륭제에게 장춘원 조성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지녔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II. 장춘원에 재현한 江南 園林

1. 獅子林

건륭제는 중국 각지, 특히 江南의 이름난 園林들을 복제하여 長春園에 재현했다. 건륭제는 6차에 걸쳐 江

1) William T. Rowe, *China's Last Empire: The Great Qing*.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p.1~6.

2) Pamela Kyle Crossley,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38.

3) ‘보편군주’에 관해서는 Sanjay Subrahmanyam, “Connected Histories: Notes towards a Reconfiguration of Early Modern Eurasia”, *Modern Asian Studies* 31: 3, 1997, pp.737~739 참조.

蘇省과 浙江省으로 南巡했으며, 여러 차례 五台山으로 西巡, 泰山으로 東巡했다. 그는 또한 熱河, 盛京(지금의 瀋陽) 그리고 盤山 등지를 여행했다. 건륭제는 중국 각지를 여행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景觀이 있으면 수행한 화가에게 그림으로 그리게 하여 귀경하여 장춘원에 재현했다.⁴⁾

장춘원의 동북쪽에 있는 獅子林은奇石 원림으로 이름 높았던 蘇州의 사자림을 복제한 것이다. 소주의 사자림은 원래 원나라 때 승려였던 天如禪師 維則과 그의 제자가 지은 불교 원림이었다. 1363년에 朱德潤(1294~1365)이 천여선사를 위해 그려준 것을 시작으로 倪瓚(1301~1374), 徐賁(1335~1393), 杜瓊(1396~1474) 그리고 文徵明(1470~1559) 등 저명한 화가들이 사자림을 화폭에 담았다.⁵⁾

건륭제가 처음으로 소주의 사자림에 관해 알게 된 것은 예찬이 그린 「獅子林圖」를 통해서였다. 청나라 초반에 內府로 유입된 예찬의 「사자림도」는 궁중 소장 서화류 목록인 『石渠寶笈』에 수록되어 紫禁城 養心殿에 보관되었다. 건륭제는 예찬의 「사자림도」를 몹시도 아끼고 좋아했다. 그래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倪瓚獅子林圖」라는 시를 지었다. 당시 그는 사자림의 소재뿐만 아니라 사자림이 원래 천여선사가 지은 사원 원림이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사자림이 예찬이 직접 설계하여 조성한 그의 별장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1751년(건륭 16년) 제1차 남순 때 소주를 방문했을 때도 건륭제는 사자림을 찾지 않았다. 건륭제는 1757년(건륭 22년) 제2차 남순 때에야 비로소 소주에 있는 黃氏 涉園이 바로 사자림의 옛 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섭원을 찾아가 觀賞하고 「游獅子林」이란 시를 지었다.⁶⁾

早知獅子林	일찌감치 사자림이
傳自倪高士	倪高士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
疑其藏幽谷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而宛居鬧市	완연하게도 시끌벅적한 시가에 있었구나.
肯構惜無人	집을 짓고도 사람이 없어
久屬他氏矣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손에 있었겠구나.

倪高士는 예찬을 가리킨다. 사자림이 예찬이 설계하고 조성한 그의 별장인 것으로 알고 있던 건륭제는 사자림이 깊은 산속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변화한 소주의 시가에 있는 황씨 소유의 섭원이 바로 사자림의 옛 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기뻐한 것이다. 다음은 건륭제가 쓴 7언율시 「獅子林」의 전반부이다.

獅子圖迹創雲林	「獅子林圖」는 雲林이 그린 것.
一卷精神直注今	두루마리의 정신이 곧바로 지금까지 흐른다.
却以墨繩爲肖築	먹줄을 쳐서 복제했더니
宛如粉本此重臨	마치 원본 그림을 그대로 그려 놓은 것 같구나. ⁷⁾

4) 劉歡萍, 「論乾隆南巡對江南形象傳播之影響—以南巡相關繪畫與仿建爲中心」, 『浙江工商大學學報』 5, 2014年 9月, 35~36쪽.

5) 賈珺, 「長春園獅子林與蘇州獅子林」, 『建築史』, 2010, 109~110쪽.

6) 賈珺, 앞의 논문, 2010, 113쪽.

다음은 건륭제가 지은 「探真」이란 시다.

試問獅子境	사자림의 경계에 관해 묻노니,
孰為幻孰真	어느 것이 허상이고 어느 것이 참모습인가?
涉園猶假借	涉園은 가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寶笈實源津	『寶笈』에 있는 것이 실제 原作이로다. ⁸⁾

雲林은 예찬의 호이다. 예찬은 만년에 「사자림도」를 그리고 대단히 만족해 하여 “「사자림도」를 그려 진정으로 荊浩(五代 때 화가)와 關仝(대략 907~960)이 남긴 뜻을 표현했다. 王蒙 같은 무리들이 꿈에서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⁹⁾라고 제화했다.¹⁰⁾ 건륭제가 말하는 ‘두루마리의 정신(一卷精神)’은 예찬이 自評한 바와 같이 오대 後梁의 저명한 화가인 형호와 관동이 ‘남긴 뜻’을 「사자림도」에 표현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건륭제는 황씨 소유의 섭원이 바로 사자림의 옛 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2차 남순 이후 4차례의 남순 때마다 소주의 사자림을 방문하여 관상하고 賦詩했다.¹¹⁾ 제4차 남순을 행했던 1765년(건륭 30년)에 건륭제는 예찬이 그린 「사자림도」를 가지고 소주의 사자림을 찾아와 그림과 원림을 서로 대조해 보기도 했다.¹²⁾ 건륭제는 1771년(건륭 36년)~1772년(건륭 37년)에 소주의 사자림을 복제하여 장춘원에 재현했다.¹³⁾ 건륭제에게 섭원(소주의 사자림)은 그가 소장하고 있는 서화류 목록인 『石渠寶笈』에 수록되어 있는 예찬의 「사자림도」를 복사하여 입체적으로 재현한 것에 불과했다. 다음은 건륭제가 쓴 「假山」이다.

吳中獅子林	吳中の 사자림은
結構雲倪者	倪雲林이 틀을 짠 것.
卽今肖御園	지금 나의 닮은꼴 원림은
豈異粉本把	어찌 원본과 다르겠는가?
又思石渠藏	『석거보급』에 소장된 것을 생각해 보니
頗多斯翁寫	이 노인이 그린 게 꽤나 많구나.
展觀皆似真	펼쳐 보니 모두 진짜 같아 보이는데
何獨此云假	어떻게 이것만 가짜라고 말해야 하는가. ¹⁴⁾

7) 朱家潛·李麗琴, 「清五朝御製集中的圓明園詩續二」, 『圓明園』 4, 1986, 65쪽.

8) 朱家潛·李麗琴, 앞의 논문, 1986, 66쪽.

9) “作獅子林圖, 真得荊關遺意, 非王蒙輩所能夢見也.”

10) 賈珣, 앞의 논문, 2010, 110쪽.

11) 賈珣, 앞의 논문, 2010, 113쪽.

12) 賈珣, 앞의 논문, 2010, 114쪽.

13) 건륭제는 사자림을 적어도 두 차례 복제하여 입체적으로 재현했다. 건륭제는 1774년(건륭 39년)에 承德에 있는 避暑山莊에 사자림을 복제하여 文園獅子林을 조성했다. 문원사자림이 완성되자 건륭제는 궁정화가에게 그 경관을 예찬의 화풍으로 화폭에 담게 했다. 賈珣, 「長春園獅子林與蘇州獅子林」, 113쪽.

14) 朱家潛·李麗琴, 앞의 논문, 1986, 73쪽.

이 시에서도 건륭제는 소주의 사자림이 예찬이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가 복제하여 장춘원에 재현한 사자림은 예찬이 설계하여 조성한 소주의 사자림과 예찬이 그의 원림을 그림으로 그린 「사자림도」를 복제한 것이다. 건륭제는 그가 장춘원에 재현한 사자림이 예찬의 사자림 및 「사자림도」와 정확하게 똑같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예찬의 의도를 파악하여 표현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2. 小有天園

장춘원 思永齋 동북쪽에 있는 小有天은 남순 때 건륭제가 방문한 杭州 西湖 남쪽 南屏에 있는 汪之夢의 汪氏園을 복제한 것이다. 왕씨원의 전신은 壑庵이라는 僧堂이었다. 이것을 왕지악이 인수하여 宅園으로 삼았다. 건륭제는 왕씨원을 무척 좋아하여 6차례 남순 때마다 모두 이곳을 방문했다. 이에 관해 『大清一統志』는 다음과 같이 이른다.

小有天園은 錢塘縣 南屏山에 있는데, 汪氏가 지은 것이다. 이 왕조 건륭 16년(1751), 22년(1757), 27년(1762), 30년(1765), 45년(1780), 47년(1782), 49년(1784) 어가가 행차할 때 6차례 이곳에 거둥 하았는데, 모두 어제가 있으며 ‘勝閣’과 ‘入雲’ 두 편액을 썼다.¹⁵⁾

남병산에 있는 왕씨원에 ‘小有天’이란 이름을 지어 준 이는 건륭제였다. 『南巡盛典』에 의하면, 제1차 남순 때인 1751년(건륭 16년)에 처음으로 왕씨원을 돌아본 건륭제는 이 아름다운 원림에 ‘小有天’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고, 제3차 남순 때인 1762년(건륭 27년)에는 ‘勝閣’이라는 편액을, 그리고 제4차 남순 때인 1765년(건륭 30년)에는 ‘入雲’이라는 편액 글씨를 썼으며, 매년 왕씨원을 방문할 때마다 시를 지어 이 원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¹⁶⁾ 왕씨원을 무척 좋아했던 건륭제는 1757년(건륭 22년) 제2차 남순을 끝내고 북경에 돌아온 뒤 장인들에게 명하여 항주의 소유전을 복제하여 장춘원 사영재 동쪽에 짓도록 했다. 장춘원 소유전은 이듬해인 1758년(건륭 23년)에 완공되었다.¹⁷⁾ 다음은 건륭제가 쓴 「御制小有天園記」이다.

왼쪽으로 淨慈寺를 두고, 明聖湖를 바라보고 있으며, 山水의 빼어남을 모두 다 담고 있는, 남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다름 아닌 왕씨의 소유전원이다. 신미년(1751) 남순 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작년 정축년(1757)에 나는 다시 이곳에 와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며 시를 읊조렸다. 돌아와 화가가 어떻게 천 리의 풍광을 지척에 넣을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思永齋 동쪽에 숲과 집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 방의 크기는 10笏이고 창은 그 반 크기이다. 창 바깥 공터 또한 10홀이다. 장인에게 명하여 바위를 쌓아 산봉우리를 만들게 했더니 놀랍게도 慧日 같았다.¹⁸⁾

15) “小有天園在錢塘縣南屏山，汪氏所建。本朝乾隆十六年二十二年二十七年三十年四十五年四十七年四十九年輦華六次臨幸，俱有御制詩，并御書勝閣入雲兩扁額。”『大清一統志』卷217.

16) 『南巡盛典』卷104 “乾隆辛未御書額小有天園，任午御書額曰勝閣，聯曰：每聞喜事心先喜，或見奇書手自抄。乙酉御書額曰入雲。”

17) 賈珺，「長春園之小有天園與杭州汪氏園」，『建築史』23，2008，94쪽.

18) “左淨慈，面明聖，兼挹湖山之秀，為南屏最佳處者，莫過於汪氏之小有天園。蓋辛未南巡所命名也。去歲丁丑復至其地。為之流

明聖湖는 항주 서호의 별칭이다. 思永齋는 장춘원의 남서쪽 모퉁이에 있다. 소유천원은 사영재의 동쪽 부분에 속한다. 笏은 관리가 임금을 알현할 때 朝服에 갖추어 손에 쥐던 패이다. 10笏은 매우 협소한 크기의 공간을 가리킬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10홀 크기의 방은 매우 작은 방이다. 건륭제가 ‘장인에게 명하여 바위를 쌓아 산봉우리를 만들게 한 것’은 石假山을 이른다. 바위를 쌓아 인공으로 만든 가짜 산이다. 慧日은 항주 소유천원에 있는 경관의 하나이다. 건륭제는 장인을 시켜 항주 소유천원에 있는 경관의 하나를 그대로 복제하여 장춘원에 재현해 놓은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원림은 ‘세계’의 축소판이다. 작은 공간 속에 세계가 있다. 건륭제가 지어준 ‘小有天’이란 이름에는 원림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인식인 ‘壺中天地’가 반영되어 있다.¹⁹⁾ 다음은 건륭제가 지은 「林屋」이란 시이다.

激水飛來雪瀑	세차게 흐르는 물은 눈 같은 폭포수를 날려 오고
疊峰聳出雲根	첩첩이 쌓인 봉우리는 구름 뿌리를 뚫고 솟아 나왔다.
壺裡絕無塵處	항아리 속에는 티끌 있는 곳이 없지만
窗中小有天園	창 속에는 소유천원이 있다. ²⁰⁾

詩注에서 건륭제는 “석가산을 쌓아 서호의 왕씨원을 닮게 만들어서 창문을 통해 보았다(堆假山肖西湖王氏園, 自窗中見之).”라고 하였다. “돌아와 화가가 어떻게 천 리의 풍광을 지척에 넣을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했던 건륭제는 창 밖 10홀 크기의 작은 공터에다 항주의 소유천원을 복제하여 재현해 놓은 것이다. 「어제소유천원기」에서 건륭제는 창문을 통해 그의 눈에 비친 창 밖 10홀 크기의 작은 공터에 재현한 ‘작은 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집의 모형을 주석으로 만들었는데도 壑庵 그대로이다. 세차게 흐르는 물이 폭포를 이루고 물소리가 맑고 시원한 이곳은 내가 들은 幽居洞과 다르지 않다. 어린 黃山 소나무는 한 尺 남짓이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기개가 있는데, 굴곡지거나 아니면 들쭉날쭉 석순과 꼭두서니 사이로 어지러이 튀어나왔다. 琴臺에 있는 古木과 푸른 언덕의 영롱함이나 빼어남과 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다.²¹⁾

壑庵은 왕씨 별업의 옛 이름이다. 幽居洞과 琴臺는 모두 항주 소유천원에 있는 경관들이다. 한 척 남짓한 자그마한 크기의 어린 황산 소나무는 盆栽이다. 건륭제에게 창문을 통해서 관상할 수 있도록 만든 소유천원은 일종의 ‘미니어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건륭제는 10홀 크기의 작은 방에서 창문을 통해 창밖에 10

連, 為之倚吟. 歸而思畫家所為收千里於咫尺者, 適得思永齋東林屋一區. 室則十笏, 窗乃半之. 窗之外隙地方廣亦十笏. 命匠氏疊石成峯, 則居然慧日也.” 『日下舊聞考』, 四庫全書本, 83.9b~10a.

19) ‘壺中天地’에 관한 이야기는 『後漢書·方術傳下』에 나온다.

20) 朱家潛·李麗琴, 「清·五朝御制集中的圓明園詩」, 『圓明園』 2, 1983, 69.

21) “範錫為宇, 又依然壑庵. 激水作瀑. 泠泠琤琤, 不殊幽居洞之所聞. 而黃山松樹子雖盈尺, 有凌雲之概. 夭矯盤擎高下雜出於石笋峭蒨間. 復與琴臺之古木蒼巖玲瓏秀削, 不可言同.” 『日下舊聞考』, 四庫全書本, 83.9b~10a.

22) 미니어처 정원과 같은 축소된 세계에 관해서는 Rolf Alfred Stein, *The World in Miniature: Container Gardens and Dwellings in Far Eastern Religious Though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p.5~113 참조.

홀 크기의 작은 공터에 만든 미니어처 정원인 소유전원을 감상하면서 “화가가 어떻게 천 리의 풍광을 지척에 넣을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

Ⅲ. 西洋樓

건륭제는 장춘원 북쪽 모퉁이에 있는 길이 320m, 너비 85m의 좁고 긴 땅에 유럽식 궁전인 西洋樓를 건설했다. 이 유럽식 궁전은 1747년(건륭 1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783년(건륭 48년)에 최종적으로 완공되었다.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 중국 이름은 郎世寧, 1688~1766)가 건축 설계를 맡았고, 프랑스 신부 미셸 베노에(Michel Benoét, 중국 이름은 蔣友仁, 1715~1774)가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뻘레르 마르샬 시보(Pierre-Martial Cibot, 중국 이름은 韓國英, 1727~1780)의 도움을 받아 분수를 설계했다.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장 드니 아티레(Jean-Denis Attiret, 중국 이름은 王致誠, 1702~1768)와 독일 예수회 선교사 이그나츠 지첼바르트(Ignaz Sichelbart, 중국 이름은 艾啟蒙, 1708~1780)가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 장식을 감독했다. 식물학자인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뻘레르 땡카르빌(Pierre d'Incarville, 1706~1757)이 조경을 맡았다. 그들 대부분은 건축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였다. 건륭제가 주문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이탈리아의 바로크풍 저택을 원명원에 재현하기 위해 카스틸리오네는 유럽에서 가져온 동판화와 유럽인이 쓴 책 속에 있는 삽화를 참고했고 거기에 자신의 기억과 상상력을 더했다. 카스틸리오네는 건륭제를 기쁘게 함과 동시에 그에게 유럽 건축이 웅장하고 정교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 이렇게 소규모 예수회 선교사들이 오랜 세월을 걸친 노력 끝에 잘 손질된 프랑스식 정원, 바로크풍의 조각상, 정자, 새장 그리고 당시 유럽 정원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관목 숲의 미로를 복제한 돌로 만든 萬花迷宮 등을 포함한 유럽식 궁전 西洋樓가 탄생했다.²³⁾

건륭제가 장춘원의 북쪽에 유럽식 궁전인 서양루를 건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티레가 프랑스 예수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1747년에 예수회 선교사가 그에게 보여준 그림들에서 유럽의 분수를 발견한 건륭제는 카스틸리오네에게 분수에 관해 묻고는 그의 조정에 이와 비슷한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유럽인이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카스틸리오네는 건륭제에게 베노에를 추천했다.²⁴⁾ 1747년 가을에 베노에 신부가 완성한 첫 번째 분수에 고무된 건륭제는 유럽식 궁전을 지을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직접 장춘원의 서북쪽 모퉁이의 좁고 긴 땅을 유럽식 궁전이 들어설 터로 정하고 카스틸리오네에게 다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유럽식 궁전 서

23) Anne-Marie Broudehoux, *The Making and Selling of Post-Mao Beijing*. London : Routledge, 2004, pp.54~57.

24) Jean-Denis Attiret,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 quelques missionnaires de la Compagnie de Jésus*, vol. IV. Paris: Pantheon Littéraire, 1775(1877), pp.226~227, quoted in Broudehoux, *Ibid*, 2004, p.55; John R. Finlay, “The Qianlong Emperor’s Western Vistas: Linear Perspective and Trompe l’Oeil Illusion in the European Palaces of the Yuanming yua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94, 2007, p.162.

양루를 짓게 했다.²⁵⁾ 만화미공을 포함한 서쪽 부분의 건물과 정원을 짓는 첫 단계 공사가 1751년에 완공되었고, 2단계 공사가 1753년에 시작되어 1759년에 완료되었다. 루이 15세가 건륭제에게 보낸 보베의 태피스 트리를 보관하기 위한 遠瀛觀은 1768년에 완성되었다. 건륭제는 또한 1783년에 造辦處에 명하여 서양루를 20장의 동판화에 새기게 했는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카스틸리오네의 제자인 만주족 궁정화가 伊蘭泰(대략 1750~1790 활동)에 의해 진행되었다.²⁶⁾

상술한 바와 같이 베노에가 제작한 첫 번째 분수에 고무된 건륭제가 유럽식 서양루의 건설을 지시했다는 것이 건륭제가 서양루를 건설하게 된 이유에 대한 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이다.²⁷⁾ 이러한 인식은 아티레가 프랑스 예수회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서양루 건설에 관해 언급한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건륭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다음은 1795년(건륭 60년)에 건륭제가 쓴 「題澤蘭堂詩」의 후반부이다.

蕪情報韶意	들풀의 마음은 아름다운 뜻에 보답하여
水法列奇觀	水法은 기이한 풍경을 펼쳤다.
洋使賀正至	서양 사신의 賀禮가 방금 당도하여
遠瀛合俾看	원영관에서 그와 함께 [수법을] 바라보았다. ²⁸⁾

다음은 「제택난당시」에 붙인 건륭제의 自注이다.

堂의 북쪽은 서양루 水法이 있는 곳이다. 건륭 18년(1753)으로 거슬러 올라가, 서양의 포르투갈이 북경으로 와서 조공했을 때 그곳에서는 수법을 기이한 광경으로 삼는다는 말을 들었다. 중국은 땅이 크고 물건이 많아 수법은 쉼씨 좋은 일개 기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에 수도에 거주하는 서양인 郎世寧에게 명하여 이 수법을 만들게 하여 사신들이 이곳에 와서 관람할 수 있게 했다.

2년 전 영국 사신 등이 북경에 와서 조공할 때에도 가서 보게 했는데 깊이 탄복하였다. 작년 겨울 廣東 總督 長麟과 巡撫인 朱珪가 상소를 올렸다. 네덜란드 사신 티칭(得勝, Issac Titsingh) 등이 올해가 집이 즉위한 지 60주년이 되는 큰 경사가 있는 해임을 알고 북경에 와서 朝賀하기를 간청했다고 한다. 수만 리 밖에서 교화를 흠모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살펴서 그 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해 선달에 북경에 당도했다. 새해 정월에 나는 그와 朝賀宴을 함께 하며 이곳 [원영관에서] 수법을 관망하게 하여 집이 즐겁게 여기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의 교화를 향한 정성스러움임을 알게 했다. 만약 그가 조공을 바치더라도 중국이 큰만큼 아무리 기이하더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²⁹⁾

25) Broudehoux, *op. cit.*, 2004, pp.54~55.

26) Finlay, *op. cit.*, p.162.

27) 그 대표적인 예가 저명한 역사학자인 왕룽주(汪榮祖, 영문명 Wong, Young-tsu)이다. Young-tsu Wong, *A Paradise Lost: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pp.59~60.

28) 崔岩, 「乾隆詩與圓明園」, 『東疆學刊』 31: 1, 2014년 1월, 28쪽.

29) “堂北為西洋水法處。蓋緣乾隆十八年, 西洋博爾都噶里雅國來京朝貢。聞彼處以水法為奇觀, 因念中國地大物博, 水法不過工巧之一端, 遂命住京之西洋人郎世寧造為此法, 俾來使至此瞻仰。前歲英吉利國使臣等至京朝貢, 亦令閱看, 深為歎服。昨冬廣東督

건륭제가 말하는 포르투갈 사신은 삼파이우(Francisco Xavier Assis Pacheco de Sampaio)가 이끈 포르투갈 사절단이다. 그들은 1752년 12월에 북경에 도착하여 1753년 6월에 북경을 떠났다.³⁰⁾ 여기서 말하는 ‘영국 사신’은 메카트니 경(Lord MaCartney, 1737~1806)이다. 건륭제의 ‘一口通商’ 정책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영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792년에 건륭제의 팔순 생일을 축하한다는 미명 아래 메카트니 경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했다. 청나라는 메카트니 경의 중국 방문을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廣東의 관리들은 영국 왕이 건륭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사를 통해 ‘貴重貢物’을 보내왔다고 조정에 보고했다. 영국의 특사 파견을 조공 사절로 본 것이다. 메카트니 경이 이끄는 영국 사절단이 북경에 도착한 것은 1793년 8월 21일이었다. 그들이 원명원을 관람하게 된 것은 8월 24일 아침이었다.³¹⁾ 8월 26일에 메카트니 경의 요청으로 사절단은 북경 성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메카트니 경의 개인 비서인 존 배로(John Barrow)는 천문학자인 제임스 딘위디(James Dinwiddie)와 함께 메카트니 경이 건륭제에게 선사한 선물들을 조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원명원에 남았다. 메카트니 경이 가져온 선물은 地球儀와 天球儀, 天上儀, 벌리아미(Vulliamy, 1747~1811)의 시계, 기압계, 웨지우드(Josiah Wedgwood, 1730~1795) 도자기, 프레이저(Fraser)의 太陽系儀, 전함의 모형과 6개의 야전포 등 모두 8가지였다. 건륭제는 이 8가지 영국의 ‘조공품’들을 원명원에 전시하고 싶었다. 그래서 熱河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전시품들을 보고자 했다. 지구의와 천구의는 원명원의 正大光明殿에 있는 어좌의 양 옆에 두었고, 조립하는데 18일이나 걸린 천상의는 정대광명전의 한쪽 끝에 두었다. 벌리아미의 시계, 기압계, 웨지우드 도자기, 프레이저의 태양계와는 반대쪽 끝에 놓여졌다. 그리고 전함의 모형과 6개의 야전포는 정대광명전과 澹懷堂 안에 전시되었다.³²⁾

원문의 ‘得勝’은 ‘Titsingh’의 음역인 것으로 보인다. 이삭 티칭(Issac Titsingh, 1745~1811)은 네덜란드 대사의 자격으로 건륭제를 만났다. 티칭이 廣州를 거쳐 북경에 도착하여 자금성에서 건륭제를 만난 것은 1월 12일이었다.³³⁾

詩注에서도 밝혔듯이, 水法(분수)이 있는 遠瀛觀은 澤蘭堂의 북쪽에 있다. 장춘원의 중심축 선상에 위치한 탁란당은 높은 곳에 있어 주위 경관을 조망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건륭제는 이곳에서 북쪽에 있는 원영관의 분수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건륭제는 포르투갈과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사신들에게 원영관의 大水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포르투갈에서 분수를 기이한 광경 ‘奇觀’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카스틸리오네에게 분수를 만들게 하여 중국 또한 유럽인들이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럽 예술품, 대형 거울, 태피스트리, 자명종 그리고 기계로 작동하는 장난감 등 건륭제가 수집한 유럽의 진

臣長麟撫臣朱珪奏，荷蘭國使臣得勝等以今歲為朕御極六十年大慶，懇請來京朝賀。鑒其數萬里外慕化惓誠，因允其請。已即於閏月到京。新正並與朝賀宴賞節間，令於是處觀看水法，使知朕所嘉者，遠人嚮化之誠。若其任土作貢，則中國之大，何奇不有。初不以為貴也。”『高宗御制詩五集』，四庫全書本，94.3a.

30) Gungwu Wang, *Maritime China in Transition 1750-1850*. Wiesbaden: Harrassowitz, 2004, pp.203~204.

31) Wong, *op. cit.*, 2001, p.83.

32) Wong, *op. cit.*, 2001, pp.84~85.

33) Wong, *op. cit.*, 2001, pp.88~90.

귀한 물건과 가구들로 가득 차 있는 서양루의 방들은 마치 유럽 왕족들의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y)’에 진열되어 있는 이국적인 물건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서양루는 건륭제가 감탄하며 봤던 동판화와 그림에 묘사되어 있던 유럽의 궁전을 3차원으로 재현했다.³⁴⁾

장춘원의 중앙에 위치한 숭경당은 건륭제가 퇴위한 뒤 ‘頤養天年’을 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래서 함경당은 장춘원에서 왕이 있는 자리이다. 장춘원의 구도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강남의 名園을 복제하여 재현한 사자림, 소유천원, 감원, 여원 등이 중앙의 호수 한가운데 ‘섬’에 있는 함경당을 에워싸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고대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공간 개념인 ‘魔方陣’이나 ‘五服’ 구도가 반영된 것이다. ‘천하세계’의 중심에 왕이 있는 것이다. 서양루 또한 장춘원에 복제하여 재현한 강남의 명원들과 다르지 않다. 서양루는 유럽의 정원을 복제하여 장춘원에 재현한 것이다. 서양루를 강남의 명원들과 함께 장춘원에 둔 것은 유럽 또한 그의 ‘천하세계’ 테두리 안에 두려는 건륭제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複製의 의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춘원에 조영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건륭제가 남순에서 접한 강남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원림들을 복제한 것이다. 건륭제는 강남의 수많은 이름난 원림들을 두루 돌아보았다. 그는 장인들과 예술가들을 대동하여 그들에게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장춘원에 옮겨놓고 싶은 원림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복제하도록 했다. 장춘원 동남쪽에 있는 如園은 江蘇省 南京에 있는, 石假山과奇石으로 유명한 瞻園을 복제한 것으로, 침원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침원은 원래 명나라 때 개국공신 徐達(1332~1385)의 宅園이었다. 청나라로 들어서면서 江南 布政使 官署의 화원으로 쓰였다.³⁵⁾ 건륭제는 1757년 제2차 남순 때 이곳을 방문했다. 장춘원 동남쪽에 위치한 여원은 건륭제가 1765년(건륭 30년) 제4차 남순에서 돌아온 뒤 복제를 시작하여 1767년(건륭 32년)에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 건륭제는 1784년(건륭 49년) 마지막 남순을 끝내고 쓴 「寄題瞻園」에서 “御園 또한 이것을 본떠 여원을 만들었는데, 景趣가 이보다 낫구나.”³⁶⁾라고 했다.³⁷⁾

장춘원의 동남쪽, 여원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여원과 짝을 이루는 鑒園은 건륭 32년에 揚州에 있는 趣園을 모방하여 조성되었다.³⁸⁾ 건륭제의 제1차 남순 이후 1751년에 조성을 시작하여 1753년에 완공된 荷園은 양주 瘦西湖에 위치한 錦春園을 모델로 삼았다. 금춘원의 주인인 吳家龍과 吳光政 부자는 徽州 歙縣 출신의 鹽商이다.³⁹⁾ 『南巡盛典』은 금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른다.

34) Broudehoux, *op. cit.*, 2004, pp.55~56.

35) 賈珺, 「長春園之如園與江寧瞻園」, 『建築史』 1, 2009, 126쪽.

36) “御園亦曾自此為如園, 而景趣較勝于此.”

37) 賈珺, 앞의 논문, 2009, 130~132쪽.

38) 賈珺, 「清代皇家園林寫仿現象探析」, 『裝飾』 2, 2010, 17쪽.

39) 端木泓, 「圓明園新證—長春園荷園考」, 『故宮博物院院刊』 5, 2005, 252쪽.

금춘원은 揚州府 남쪽에 있다. 由閘關으로부터 2리 떨어져 있다. 상인 吳氏의 別業이다. 건륭 16년에 지금의 이름을 하사했다. 여기에는 江城閣·魚台·梅廳·桂廳·水閣 등 여러 勝景이 있다.⁴⁰⁾

건륭제는 朗潤齋·湛景樓·菱香泚·青蓮朵·別有天·韻天琴·標勝亭·委宛藏 등 8경을 선정하고 「荷園八景詩」를 지었다.⁴¹⁾ 금춘원이 위치한 瓜洲는 남북 교통의 요충지여서 건륭제가 남순에서 長江을 건너 양주로 향해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었다. 금춘원은 이러한 천혜의 지리적 위치와 당시 양주 최고의 名園이라는 명성으로 인해 건륭제가 남순 때 잠시 머무는 행궁이 되었다. 錢泳의 『履園叢話』 「瓜洲錦春園」조에 의하면, “금춘원은 瓜洲城의 북쪽에 있는데, 앞으로 운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나는 남북을 왕래한 지 50여 년이 되는데, 반드시 이 원림을 거쳐 지나간다.”⁴²⁾고 한다. 전영은 또한 “원림은 매우 넓는데 여기에는 못이 하나 있다. 물이 매우 맑고 얕은데 연꽃을 심었다. 누각에 올라 바라보면 구름 속 나무는 멀리 아득하고, 돛대는 눈에 가득 찬다.”⁴³⁾라며 금춘원 절경의 아름다움을 盛贊했다. 그래서 “건륭제는 6차례 남순할 때마다 모두 이곳에서 어가를 멈추고 머물렀다.”⁴⁴⁾고 한다. 건륭은 금춘원 행궁에 머물던 시기에 누차 頒賞題賜했다. 건륭16년 제1차 남순에서 건륭은 원림의 이름을 짓고 직접 쓴 ‘錦春園’ 편액을 하사했다. 건륭22년 제2차 남순에서는 ‘竹淨松蕤’라고 쓴 편액을 하사했다. 건륭27년 제3차 남순에서는 「三月晦日錦春園即景」을 짓고 직접 쓴 시를 하사했다.⁴⁵⁾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5개의 강남 원림이 장춘원에 복제되었다. 南京의 瞻園, 海寧의 安瀾園, 蘇州의 獅子林 그리고 杭州의 小有天園은 건륭제 때 강남의 4대 명원이었다. 이 가운데 원명원에 재현된 안란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명원은 장춘원에 재현되었다.⁴⁶⁾ 複製를 중국어로 ‘寫仿’이라고 한다. ‘寫仿’은 『史記·秦始皇本紀』에 처음 나타난다.

祖廟, 章臺宮, 上林苑이 모두 渭水의 남쪽 언덕에 있었다. 이것들은 진나라가 제후들을 평정할 때마다 그 나라의 궁실을 복제(寫仿)하여 咸陽의 북쪽 산기슭에 지은 것인데, 남쪽으로는 위수가 흐르고 雍門 동쪽에서 涇水, 위수에까지 이르며, 궁전 사이의 구름다리와 周閣이 서로 연이어져 있으며, 제후들에게서 뺏은 미인과 鍾鼓가 이곳을 메우고 있었다.⁴⁷⁾

40) “錦春園在揚州府南, 距由閘關二里, 商人吳氏別業, 乾隆十六年賜今名, 中有江城閣魚台梅廳桂廳水閣諸勝.”

41) 端木泓, 앞의 논문, 2010, 247쪽.

42) “錦春園在瓜洲城北, 前臨運河, 余往來南北五十餘年, 必由是園經過.”

43) “園甚寬廣, 中有一池, 水甚清淺, 皆種荷花, 登樓一望, 雲樹蒼茫, 帆檣滿目.”

44) “高宗純皇帝六次南巡, 俱駐蹕于此.”

45) 端木泓, 앞의 논문, 2010, 253~254쪽.

46) 원명원에 재현된 안란원은 해녕에 있는 陳氏 安瀾園을 복제한 것이다. 건륭제가 쓴 「題安瀾園」에 의하면, 해녕 안란원의 원래 이름은 隅園이었다. 안란원이란 이름은 건륭제가 1762년 남순 때 이곳에 들러 지어준 것이다. ‘安瀾’은 물결이 안정되다, 태평하다는 의미이다. ‘安瀾盛世.’ 건륭제의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朱家潛·李艷琴, 앞의 논문, 1986, 88~89쪽. 안란원 이외에도 원명원에는 寧波에 있는 范氏의 藏書樓인 天一閣을 복제한 文源閣, 紹興에 있는 蘭亭을 복제한 坐石麟流 그리고 杭州의 龍泓亭을 복제한 飛睇亭 등 강남 원림 및 건축물을 복제하여 재현한 건축물이 많다. 賈珺, 앞의 논문, 2010, 17~18쪽.

47) “諸廟及章臺上林皆在渭南. 秦每破諸侯, 寫放其宮室, 作之咸陽北阪上, 南臨渭, 自雍門以東至涇渭, 殿屋復道周閣相屬, 所得諸

진시황제는 왜 제후들을 평정할 때마다 그 나라의 궁실을 ‘복제(寫仿)’하여 咸陽의 북쪽 산기슭에 지은 것일까? 전국 시대 6개 제후국을 평정하여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에게 그의 수도 함양은 중국의 중심이며 제국의 축소판이었다. 『漢書·高帝紀』에 “천자는 사해를 집으로 삼는다.”⁴⁸⁾라고 하였고, 『左傳·昭公七年』에 “은 하늘의 아래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⁴⁹⁾라고 하였고, 『孟子·盡心上』에 “만물이 모두 나에게서 갖추어졌다.”⁵⁰⁾라고 하였다.⁵¹⁾ 이것이 진시황제가 제후들을 평정할 때마다 그 나라의 궁실을 복제하여 함양의 북쪽 산기슭에 지은 정치적 의도이다.⁵²⁾

진시황제가 정복한 제후국들의 궁전을 복제하여 함양에 재현한 것은 제임스 클리포드(James Clifford)가 말하는 ‘문화수집(collecting cultures)’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클리포드는 서구의 박물관들에 전시되어 있는 비서구 문화권의 원시예술품을 서구의 타문화수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문화수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다. 그에 의하면, 내 주변 및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주변의 물질 ‘세계’를 수집하고, 세계를 구획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행위이다. 세계의 문화를 수집하는 것은 곧 그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적 행위이다.⁵³⁾

건륭 35년인 1770년에 자신이 직접 쓴 『御制長春園題句有序』에서 건륭제는 “눈앞에 이름난 원림을 대하는 데에는 또한 이유가 있다.”⁵⁴⁾라고 말하고 있다.⁵⁵⁾ 하지만 건륭제는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건륭제가 강남의 이름난 원림을 복제하여 북경의 장춘원에 재현한 것 또한 진시황제가 그가 정복한 제후국들의 궁전을 복제하여 함양에 재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클리포드가 말하는 문화수집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진시황제와 건륭제가 그들의 수도에 재현한 제후국의 궁전과 강남의 이름난 원림은 그들의 영향권에 있는 ‘세계’를 이루는 지역들을 표상하는 문화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영향권에 있는 세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물들을 수집하여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써 통치자는 복제하여 재현한 대상들이 표상하는 지역들에 대한 지배를 공포하게 된다.

V. 결 론

건륭제가 통치한 청나라 중국은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였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고

侯美人鐘鼓以充入之。”

48) “天子以四海為家.”

49) “普天之下，莫非王土.”

50) “萬物皆備于我.”

51) 賈珣, 앞의 논문, 2010, 16쪽.

52) 진시황제의 함양 건설에 관해서는 Mark Edward Lewis, *The Construction of Space in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pp.170~174 참조.

53) James Clifford, *The Predicament of Culture: Twentieth-Century Ethnograph, Literature, and Ar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p.218.

54) “即景名園亦有由.”

55) 『日下舊聞考』, 四庫全書本, 83.2b.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로 통합하는가의 문제는 다민족국가를 다스렸던 만주족 통치자 건륭제의 고민이었다. 수많은 소수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화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노력들이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문화현상들이 많다. 그가 조성한 장춘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춘원에 조영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건륭제가 남순에서 접한 강남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원림들을 복제한 것이다. 건륭제는 강남의 수많은 이름난 원림들을 두루 돌아보았다. 그는 장인들과 예술가들을 대동하여 그들에게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장춘원에 옮겨놓고 싶은 원림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복제하도록 했다. 또한 그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장춘원에 유럽식 궁전인 서양루를 건설했다.

장춘원은 건륭제에게 그가 다스리는 광활한 청 제국의 축소판이었다. 장춘원은 건륭제에게 ‘盆景’처럼 그의 ‘천하세계’를 표상하는 미니어처 정원이었다. 건륭제가 장춘원에 복제하여 재현한 강남의 이름난 원림들은 그의 영향권에 있는 강남 지역을 표상하는 문화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영향권에 있는 ‘천하세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물들을 수집하여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써 통치자는 그가 복제하여 재현한 대상들이 표상하는 지역들에 대한 지배를 공포하게 된다.

〈참고문헌〉

- Broudehoux, Anne-Marie, *The Making and Selling of Post-Mao Beijing*, London : Routledge, 2004.
- Clifford, James, *The Predicament of Culture : Twentieth-Century Ethnography, Literature, and Ar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Crossley, Pamela Kyle, *A Translucent Mirror :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Finlay, John R., “The Qianlong Emperor’s Western Vistas : Linear Perspective and Trompe l’Oeil Illusion in the European Palaces of the Yuanming yua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94, 2007, pp.159~193.
- Kleutghen, Kristina, *Imperial Illusions: Crossing Pictorial Boundaries in the Qing Palac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5.
- _____, “Staging Europe: Theatricality and painting at the Chinese Imperial Court.” *Studies in Eighteenth-Century Culture* 42, 2012, 81-102.
- Lewis, Mark Edward, *The Construction of Space in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 Rawski, Evelyn S., and Rawson, Jessica, eds., *China: The Thress Emperors, 1662~1795*. London: Royal Academy of Arts, 2005.

- Rowe, William T., *China's Last Empire : The Great Qing*. Cambridge, Mass. :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Siu, Victoria M., Cha-Tsu, *Gardens of a Chinese Emperor: Imperial Creations of the Qianlong Era, 1736~1796*, Lanham: Lehigh University Press, 2013.
- Stein, Rolf Alfred, *The World in Miniature : Container Gardens and Dwellings in Far Eastern Religious Thought*,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Subrahmanyam, Sanjay, "Connected Histories : Notes towards a Reconfiguration of Early Modern Eurasia," *Modern Asian Studies* 31: 3, 1997.
- Wang, Gungwu, *Maritime China in Transition 1750~1850*, Wiesbaden: Harrassowitz, 2004.

于敏中 等 編,『日下舊聞考』,四庫全書本.

崔岩,「乾隆詩與圓明園:兼論乾隆帝的造園思想」,『東疆學刊』31: 1, 2014年 1月.

端木泓,「圓明園新證—長春園舊園考」,『故宮博物院院刊』5, 2005.

賈珺,「長春園之如園與江寧瞻園」,『建築史』1, 2009.

——,「長春園獅子林與蘇州獅子林」,『建築史』, 2010.

——,「長春園之小有天園與杭州汪氏園」,『建築史』23, 2008.

——,「清代皇家園林寫仿現象探析」,『裝飾』2, 2010.

劉歡萍,「論乾隆南巡對江南形象傳播之影響—以南巡相關繪畫與仿建為中心」,『浙江工商大學學報』5, 2014年 9月.

朱家潛·李艷琴,「清·五朝御製集中的圓明園詩」,『圓明園』2, 1983.

——,「清·五朝御製集中的圓明園詩續二」,『圓明園』4, 1986.

* 이 논문은 2017년 5월 26일에 투고되어,
2017년 6월 22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7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7월 1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An Essay on Emperor Qianlong's Project of the Garden of Eternal Spring**

Lee, Eunsang*

The Qing China Emperor Qianlong ruled was a multiracial nation. The matter of how to integrate harmoniously many ethnic groups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into one was a very prominent question in the mind of Emperor Qianlong who had to govern a multiracial nation as a Manchu ruler. There were many cultural phenomenon which visualized his effort to construct "harmonious China" by means of integrating many racial minorities into one. Emperor Qianlong's construction of the Garden of Eternal Spring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vein.

Most of buildings constructed in the Garden of Eternal Spring were the replications of captivating and beautiful gardens in the region of Jiangnan Emperor Qianlong saw during his southern tours. Emperor Qianlong toured many famous gardens in the region of Jiangnan. Emperor Qianlong accompanied by artisans and painters during his southern tours and made them to reproduce gardens he liked in the Garden of Eternal Spring. He also built Western Multistoried Buildings by the help of Jesuits.

The Garden of Eternal Spring was a microcosm of vast Qing Empire he ruled. The Garden of Eternal Spring was a miniature garden representing the world under heaven. The famous gardens in the region of Jiangnan which were reproduced in the Garden of Eternal Spring would be taken as cultural symbols representing the region of Jiangnan within the sphere of his influence. Ruler can announce his control of the regions by means of collecting cultural symbols representing regions of the world under his influence and assembling them on the center.

[Key Words] Qing China, multiracial nation, Emperor Qianlong, garden, The Garden of Eternal Spring, Western Multistoried Building, universal empire

* Researcher,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